

여친 만날려면  
건강 해야지

스마트폰 강좌 7대1·소셜댄스 3대1  
지원자 대거 몰리며 폭발적 인기  
어르신들 “아침만 되면 설레요”

이쁜 손주와  
카톡 하려구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엔 ‘젊은 활기’ 넘친다

“여친 만날려면 건강해야지.” “손주와 카톡하러구.”

‘젊은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들에게 댄스와 요가, 스마트폰 강좌가 인기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이 강좌에 참여하려면 최고 7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최근 ‘2017년 1기(1~4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스마트폰 강좌의 경쟁률은 시간에 따라 최고 7대 1로 나타났다. 소셜댄스 강좌는 최고 3대 1, 왈츠댄스와 건강댄스, 요가 강좌는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노인건강타운은 이들 강좌에 지원자가 2배 이상 몰리자 추첨을 통해 수강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당첨되지 못하면 흑시모를 ‘수강 포기자’가 나타나길 고대하며 기다린다. 대기자만 수십명에 이른다.

특히 소셜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노인건강타운 관계자는 “소셜댄스 강좌가 9개 반에 총 정원이 756명인 것을 감안하면 210명이 정원인 스마트폰 강좌에 비해 훨씬 인기가 높다”며 “소셜댄스 강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해마다 강좌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댄스와 건강댄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남녀가 2인 1조로 짝을 이뤄 강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가며 춤을 추거나, 강좌를 통해 새로운 이성 친구를 사귀 수 있어서다.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홀로된 노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또 격렬한 동작이 없어 나이가 든 노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4개월 과정을 배



지난 23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소셜댄스 강좌에 참여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다.

우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

매일 오전 10시에 노인건강타운을 찾는다. 박동식(74) 할아버지는 “소셜댄스 강좌에 참여하면서 건강타운을 찾는 즐거움도 더 커졌다”며 “소셜댄스 강좌가 열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안병문(70) 할아버지는 “소셜댄스 강좌를 듣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데스 강좌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항상 즐겁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었다”며 “다음 기수 때도 신청을 했는데 어렵게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고 웃었다.

선옥순(77) 할머니는 “남편과 늘푸른 부부팀에 소속돼 소셜댄스 강좌를 함께 들었는데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고 좋아서 주로 댄스강좌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소춘자 할머니도 “일번어나 서에 같은 강좌도 좋지만 신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춤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추천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박수정 씨는 “소셜댄스나 요가 강좌가 인기있는 이유는 따라하기도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라며 “신나게 댄스를 즐기는 동시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 “요즘에는 스마트폰 강좌도 인기가 많다”며 “젊게 살려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손자손녀와 카카오톡·SNS로 소통하고, 친구들과 놀러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강좌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여가복지 종합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등록 회원이 6만6575명으로 하루 평균 5000명, 연평균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은 월 이용료 5000원만 내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구내식당 식비 1500원, 사우나 이용료 1500원 등 3000원만 있으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전원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복권 3000장과 함께 ‘외로운 죽음’

### 홀로 살던 광주 50대 숨진 지 8개월 지난 듯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복권 수천장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최소 8개월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9시1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A(54)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동생이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A씨 형(60)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로, 숨진 후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며 “방은 청소가 되지 않고 물건들이 어질러진 상태였다. 먼지가 수북했다”고 설명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방에 있던 컴퓨터 옆에서는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 3000장이 발견됐다. 현금으로 약 1500만원 어치로 추정된다. 로또 복권 옆에서는 로또 번호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자필 메모지가 잔뜩 발견됐다. 경찰은 공공근로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가 틈틈이 복권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50대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 6년 전부터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형도 4년 전 마지막으로 A씨의 얼굴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년 전부터 당뇨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밀수업자 뒤 봐주고 돈챙긴 세관공무원들

### 납품업자 등 7명 적발

세관에서 압수한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 펠릿’을 화력발전소에 불법 납품하고 거액을 챙기거나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세관이 압수한 왕겨 펠릿 8400여이 일부 발전소에 납품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납품업자와 세관 공무원 등 7명을 적발,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세관 공무원 A(49)씨는 2014년 5월경 창고업자 D(40)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D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처초카를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수 수뢰 등)를 받고 있다. 세관 직원 B(39)씨와 C(57)씨도 A씨와 함께 D씨를 도운 뒤 지인을 D씨 회사에 취업시키는 등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한 세관 직원들은 D씨가 밀수입한 왕겨 펠릿 8436t을 적발해 공매한 후 D씨가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압수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창고업자 D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화력발전소에 밀수한 왕겨 펠릿 등을 국내산 또는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인 후 약 3만5000t을 납품해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매를 통해 왕겨 펠릿을 낙찰받은 모회사 대표 E(56)씨는 201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국내산 또는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인 후 화력발전소에 5만t을 납품해 7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D씨의 회사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165개 입주업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18개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상근예비역들 잇단 탈선... 관리 문제 많네

###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 성폭행·절도까지

### 31사단 대책 마련 고심

육군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3명이 불과 보름 사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성폭행,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군부대의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사단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광주광산경찰은 28일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

도)로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A(21) 상병을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 A 상병은 지난 27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20만원의 현금 등 지난 8일부터 11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서구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1사단 소속 상근예비역 B(21) 상병이 헌병대에 인계됐다. B 상병은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 사이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병은 현재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북구에서는 31사단 소속 C(21) 상병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각장애를 지닌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헌병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부터 친구와 술을 마신 C 상병은 출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상근예비역은 육군 현역병과 복무 기간, 계급 등이 같다. 하지만 오전 8시30분까지만 출근해 오후 5시30분께 퇴근하고 주말과 휴일도 보장받는다. 1994년 방위 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제도다. 현역병과 동등하게 음주나 운전, 이수지역 이탈 및 전호(밤 10시) 이후 외출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현역병과 달

리 퇴근 후 관리가 쉽지 않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퇴근 이후 상근예비역에 대한 관리의 밤 10시에 이뤄지는 전화 한 통이 전부다. 각 부대는 평일에는 저녁 전호를 대신해 밤 10시에 상근예비역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와 밤 10시에 두 차례 상황을 확인한다. 밤 10시 전호 이후에는 외출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 위치를 보고받고 야간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밤 10시 이후 음주와 범죄 등 일탈행위가 이뤄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31사단은 당장 사고예방교육과 함께 문제 경력이 있는 인원들을 해당 과역에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상근예비역 관리 지침과 규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절도 재판 중인 30대 또 도둑질...휴대폰 떨어뜨려 들통



○절도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남성이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치려 침입했다가 현장에 들리고 간 휴대전화 때문에 정체가 탄로나 형이 추가 될 위기.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8)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이모(61)씨의 식당에 침입해 현금 3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 한 달

새 출입문이 허술한 영세 식당 17곳에 침입,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영세 자영업자를 악물러 들 훔치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문등을 훔쳐가던 장씨의 범행은 뜻밖에도 그가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간 것을 확보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막을 내렸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잃어버린 휴대폰이 범행 장소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 편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 오후 3시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 집 인 원	지 원 자 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